

다문화 배경 대학생의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융합적 연구: MAPS 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Focusing on MAPS Panel Data

동윤정^{1*}

Youn-Jeong Dong^{1*}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배경 대학생의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이후 대학생활만족도 간의 장기적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술·연구 활용을 위해 구축·공개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1기의 5차 연도(2015년)와 14차 연도(2024년) 자료를 연계하여, 주요 변인에 모두 유효하게 응답한 대학생 359명을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Pearson 상관분석 및 단순회귀분석 결과,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대학생활만족도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217, p<.001$), 대학만족도, 학업적응 및 사회적응과도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단순회귀분석에서도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이후 대학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나($\beta=.217, p<.001$), 설명력은 4.7%로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약 9년 후 대학생활 경험 간에 장기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어 능력을 여러 관련 요인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여 다문화 배경 학생의 한국어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의 학업·사회적 적응을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어 : 다문화 배경 대학생,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 대학생활만족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종단 자료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subsequent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Data from the fifth wave (2015) and the fourteenth wave (2024)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established and publicly releas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r academic and research use, were linked and analyzed. The final sample consisted of 359 college students with valid responses to the major variables at both time point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1 Division of Liberal Arts, Ansan University, Ansan, Korea [Adjunct Assistant Professor]
e-mail: dyj69@hanmail.net

Received(September 12, 2026), Review Result(1st: September 29, 2026), Accepted(October 13, 2026), Published(October 31, 2026)



© 2026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analysis showed that adolescen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overall college life satisfaction ($r=.217$, $p<.001$) as well as college satisfaction, academic adjustment, and social adjustment. Simple regression analysis also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subsequent college life satisfaction ($\beta=.217$, $p<.001$), although the explanatory power was relatively low at 4.7%. These findings indicate a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n adolescence and college experiences measured approximately nine years later, suggesting tha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multiple related factors when link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 academic and social adjustment in higher education for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Keyword : college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adolescen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college life satisfaction,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longitudinal data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이 성장하여 성인기로 이행함에 따라 다문화 관련 연구의 범위도 초·중등교육 단계의 학교생활적응을 넘어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단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1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1기를 구축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1]. 이러한 종단 자료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이후 성인 초기의 교육적 경험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문화 배경 청소년에게 한국어 능력은 일상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의 이해, 학습 과제 수행, 자신의 생각 표현 및 교사·또래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중요한 교육적 자원이다. MAPS 1기에서는 청소년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의 네 영역으로 측정하였으며, CILS(Children of Immigrants Longitudinal Study)의 문항을 수정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활용하였다 [1]. 선행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및 교우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한 한국어 능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도 또래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4]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어 능력이 의사소통 기능을 넘어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관계 및 교육환경 적응과 관련되는 중요한 언어적 자원임을 보여준다. 한편, 다문화 배경 청소년이 대학생 시기로 이행하면서 관련 연구도 고등교육 및 초기 성인기의 적응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2세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 과정과 대학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5], 이주배경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업 부담과 언어적 장벽,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사회적 적응 등이 주요 경험으로 나타났다 [6]. 또한 MAPS 대학생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배경 대학생의 진로 장벽 유형과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7].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 배경 학생에 관한 연구가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서 대학 및 초기 성인기의 학업·사회·진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청소년기의 한국어 능력과 동시기 학교생활적응 및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2-4], 대학생 시기의 적응 및 진로 특성을 별도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5-7]. 따라서 동일한 조사 대상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에 측정된 한국어 능력과 이후 대학생 시기의 대학생활 경험 간의 장기적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한국어 능력과 교육적 적응 간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에도 [2-4], 청소년기에 측정된 한국어 능력과 이후 고등교육 단계의 만족 및 적응 간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대학에서는 강의 이해, 전공 자료 읽기, 과제 및 보고서 작성, 발표와 토론 등 다양한 언어활동이 요구되며, 대학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 및 대학 내 활동 참여에서도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측정된 한국어 능력과 이후 대학만족도, 학업적응 및 사회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 배경 학생의 교육 경험을 청소년기에서 대학생 시기까지 연속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언어적 자원과 이후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적 경험을 종단 패널 자료를 통해 연계함으로써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고등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적 지원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MAPS 1기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이 마지막으로 측정된 5차 연도(2015년) 자료와 대학생활 관련 변인이 조사된 14차 연도(2024년) 자료를 연계하고,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이후 대학생활만족도 간의 장기적 관련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의 네 영역을 활용하고,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만족도, 학업적응 및 사회적응을 포괄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약 9년의 시차를 두고 측정된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의 만족 및 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문화 배경 학생의 청소년기 한국어 교육과 이후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적 지원을 연계하여 이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배경 대학생의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 배경 대학생의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다문화 배경 대학생의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이후 대학생활만족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가?

본 연구는 MAPS 1기의 서로 다른 조사 시점을 연계하여 청소년기에 측정된 한국어 능력과 약 9년의 시차를 두고 측정된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청소년기의 언어적 자원과 이후 고등교육 단계의 교육적 경험을 종단 패널 자료를 통해 연결하여 다문화 배경 학생의 교육 경험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배경 학생의 성장 단계에 따른 연속적인 한국어교육 및 고등교육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가 아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술·연구 활용을 위해 구축·공개한 MAPS 1기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1]. 분석에는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이 마지막으로 측정된 5차 연도(2015년) 자료와 대학생활 관련 변인이 조사된 14차 연도(2024년)의 최신 공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공식 데이터 이용 절차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이며, 분석 변인의 구성과 문항은 해당 조사표와 코드북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5차 연도 조사 참여자 1,348명 중 한국어 능력 4문항에 모두 유효하게 응답한 대상자는 1,347명이었으며, 14차 연도 조사 참여자 892명 중 대학생활만족도 관련 문항에 유효하게 응답한 대학생은 364명이었다. 두 시점의 자료를 개인 식별 번호(PID)를 기준으로 연계한 후 주요 변인에 모두 유효하게 응답한 35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선정 과정 (N=359)

[Table 1] Participant Selection Process (N=359)

선정단계	대상자 수
5차 연도 조사 참여 청소년	1,348명
5차 연도 한국어 능력 유효 응답자	1,347명
14차 연도 조사 참여 청소년	892명
14차 연도 대학생활만족도 유효응답자	364명
5차·14차 PID 병합 및 주요 변수 유효 응답자	359명

2.2 연구 변인 및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은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이다.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MAPS 1기 5차 연도(2015년), 대학생활만족도는 14차 연도(202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CILS의 문항을 수정하여 구성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의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 각 문항은 ‘전혀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4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지각하는 한국어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7이었다.

대학생활만족도는 MAPS 1기 14차 연도의 대학생활 관련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문항은 Baker와 Siryk의 대학생활적응도검사를 수정·보완한 선행 척도를 바탕으로 일부 문항을 발제·수정

하여 구성되었다 [1]. 대학만족도 4문항, 학업적응 4문항, 사회적응 4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세 하위영역을 포괄하여 ‘대학생활만족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채점한 후 각 하위영역과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과 학업 및 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대학만족도 .732, 학업적응 .708, 사회적응 .767, 전체 .856이었다.

주요 변인의 구성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인의 구성 및 신뢰도

[Table 2]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Study Variables

변인	하위영역	문항 수	척도	역채점 문항	Cronbach's α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	말하기·쓰기·읽기·듣기	4	4점	-	.957
대학생활만족도	대학만족도	4	5점	3,4	.732
	학업적응	4	5점	7,8	.708
	사회적응	4	5점	11	.767
	전체	12	5점	3,4,7,8,11	.856

※ 주: 각 변인의 전체 및 하위영역 점수는 해당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2.3 자료 분석

두 시점의 자료를 PID를 기준으로 연계하고 주요 변인에 모두 유효하게 응답한 3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의 수준과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 및 하위영역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이후 대학생활만족도 간의 기초적인 장기적 관련성과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을 독립변수로, 대학생활만족도 전체와 각 하위영역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 능력의 독립적인 인과효과를 추정하기보다 두 시점 간의 기초적 관련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별도의 통제변인은 투입하지 않았다.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p<.05$ 로 설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의 수준

다문화 배경 대학생의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M), 표준편차(SD),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의 기술통계 ($N=359$)[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Adolescen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N=359$)

변인	구분	<i>M</i>	<i>SD</i>	최솟값	최댓값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	말하기	3.738	.483	1	4
	쓰기	3.674	.536	1	4
	읽기	3.738	.488	1	4
	듣기	3.749	.471	1	4
	전체	3.725	.466	1.25	4.00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만족도	3.665	.759	1.25	5.00
	학업적응	3.572	.729	1.75	5.00
	사회적응	3.498	.841	1.00	5.00
	전체	3.579	.647	1.83	5.00

※ 주: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4점 척도, 대학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전체 점수는 해당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분석 결과,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 전체 평균은 3.725점($SD=.466$)으로 나타났다. 언어 기능별로는 듣기($M=3.749$, $SD=.471$)가 가장 높았고, 말하기($M=3.738$, $SD=.483$)와 읽기($M=3.738$, $SD=.488$), 쓰기($M=3.674$, $SD=.536$)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 전체 평균은 3.579점($SD=.647$)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대학만족도($M=3.665$, $SD=.759$), 학업적응($M=3.572$, $SD=.729$), 사회적응($M=3.498$, $SD=.84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위영역 간 평균 차이에 대한 별도의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기술통계 수준에서 해석하였다.

3.2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N=359$)[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dolescen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N=359$)

구분	한국어 능력	대학생활만족도	대학만족도	학업적응	사회적응
한국어 능력	1				
대학생활만족도	.217***	1			
대학만족도	.189***	.868***	1		
학업적응	.176***	.809***	.615***	1	
사회적응	.179***	.822***	.567***	.445***	1

*** $p < .001$

분석 결과,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대학생활만족도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17, p<.001$). 또한 대학만족도($r=.189, p<.001$), 학업적응($r=.176, p<.001$), 사회적응($r=.179, p<.001$) 과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이후 대학생활 만족도와 각 하위영역의 수준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3.3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의 회귀분석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이후 대학생활만족도 간의 관련성과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대학생활만족도 전체와 대학만족도, 학업적응 및 사회적응을 각각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의 회귀분석 ($N=359$)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Adolescen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N=359$)

종속변수	<i>B</i>	<i>SE</i>	β	<i>t</i>	R^2	<i>F</i>
대학생활만족도	.302	.072	.217	4.203***	.047	17.668***
대학만족도	.307	.085	.189	3.627***	.036	13.156***
학업적응	.275	.082	.176	3.369***	.031	11.347***
사회적응	.323	.094	.179	3.432***	.032	11.776***

*** $p<.001$

분석 결과,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이후 대학생활만족도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eta=.217, t=4.203, p<.001$).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7.668, p<.001$), 대학생활만족도 전체 변량의 4.7%를 설명하였다($R^2=.047$).

하위영역별로는 대학만족도($\beta=.189, t=3.627, p<.001$), 학업적응($\beta=.176, t=3.369, p<.001$), 사회적응($\beta=.179, t=3.432,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각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대학만족도 3.6%($R^2=.036$), 학업적응 3.1%($R^2=.031$), 사회적응 3.2%($R^2=.032$)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MAPS 1기 5차 연도(2015년)와 14차 연도(2024년) 자료를 연계하여 다문화 배경 대학생 359명의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이후 대학생활만족도 간의 장기적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언어 기능별로는 듣기가 가장 높고 쓰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만족도, 학업적응, 사회적응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이 기술통계상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배경 대학생의

교육 경험을 이해할 때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대학 내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2세대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서 대학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 [5]와 이주배경 대학생의 적응 과정에서 언어적 장벽, 의사소통 및 사회적 적응의 중요성을 제시한 연구 [6]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다만 언어 기능 및 대학생활만족도 하위영역 간 평균 차이에 대한 별도의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영역 간 차이는 기술통계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약 9년의 시차를 두고 측정된 대학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대학만족도, 학업적응 및 사회적응과도 모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 등이 종단적으로 상호 관련된다는 연구 [2]와 한국어 능력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4]의 역할을 확인한 연구들과 연결된다. 기존 연구가 주로 청소년기 내에서 한국어 능력과 학교생활적응 및 심리·사회적 요인의 관계를 살펴본 것과 달리 [2-4],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측정된 한국어 능력과 이후 대학생 시기의 대학생활 경험을 동일한 패널 자료를 통해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MAPS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시기의 진로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 [7]의 논의를 확장하여, 청소년기의 언어적 자원과 이후 고등교육 단계의 학업·사회적 적응을 장기적으로 연결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셋째,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beta=.21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7%($R^2=.047$)로 크지 않았으며, 하위영역의 설명력도 3.1~3.6% 수준이었다. 이는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이 이후 대학생활의 만족 및 적응과 관련되지만, 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한국어 능력 외에도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서도 한국어 능력과 교육적 적응의 관계에서 또래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3][4]. 또한 본 연구는 두 시점 간의 기초적인 장기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으로 통제변인을 투입하지 않았으므로, 회귀계수를 한국어 능력의 독립적인 인과효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은 이후 대학생활만족도를 직접 결정하는 요인이라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관련성을 보이는 여러 선행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청소년기 당시의 일상적 의사소통이나 학교생활적응에만 한정하기보다 이후 고등교육 단계와의 연속성 속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대학에서 요구되는 전공 자료 읽기, 과제 및 보고서 작성, 발표와 토론 등의 학업 수행과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청소년기부터 학업과 사회적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균형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어 능력의 설명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교육만을 대학생활 적응의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기보다 학업·사회·심리적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교육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조사 대상의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약 9년 후 대학생활 경험을 연계함으로써 다문화 배경 학생의 교육 경험을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살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 온 언어적 자원과 다문화·고등교육에서 다루어 온 대학생활의 만족 및 적응을 종단 패널 자료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다문화 배경 학생의 성장 단계에 따른 교육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이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되었으므로 실제 언어 수행 능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한국어 능력평가나 객관적인 언어 수행 자료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MAPS 1기의 표본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5차 연도와 14차 연도의 두 시점을 연계하였으나 그 사이의 한국어 능력과 교육적 적응의 변화 과정을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이후 대학생활만족도 간의 기초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다른 관련 요인의 영향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가족 및 사회경제적 특성, 심리·사회적 요인 등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될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이나 종단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이후 대학생활 적응 간의 독립적인 관련성과 변화 경로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D. H. Shin, J. Y. Lee, and J. M. Lee, "2025 Multicultural Adolescents Longitudinal Study: Basic Analysis Report (First Pane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ejong, Republic of Korea, Research Report 25-General07-01, Dec. 2025. [Online]. Available: <https://www.nypi.re.kr/repository/handle/2022.oak/6578>
- [2] H. N. Ko, X. Hu, and Y. H. Park, "Longitudinal reciprocal causalities among Korean proficiency, self-esteem,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peer relationship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37, no. 1, pp. 1-28, Mar. 2023, doi: 10.17286/KJEP.2023.37.1.01.
- [3] J. H. Yu and S. Y. Hwang, "The influence of Korean proficiency on school adjustment among immigrant youth: Focusing on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peer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 66, pp. 1-25, Jun. 2024, doi: 10.31409/KJSWE.2024.66.1.
- [4] E. Mok and S. G. Park,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on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iso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youth,"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19, no. 1, pp. 149-174, Mar. 2026, doi: 10.14328/MES.2026.3.31.149.
- [5] H. J. Yun,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and support to university of the 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alism," *Multi-culture Contents Studies*, no. 35, pp. 225-252, Dec. 2020, doi: 10.15400/mccs.2020.12.35.225.
- [6] H. K. Jeon, "A study on the adapting process of Korean society of university students from migration

background - Centered on middle-income youths in Vietnam -,"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vol. 20, pp. 211-252, Jul. 2025, doi: 10.22957/mses.20..202507.211.

- [7] H. H. Lee, S. R. Cho, I. H. Lee, and H. S. Back, "Types of career barriers and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The Review of Social Science*, vol. 10, no. 4, pp. 263-290, Dec. 2025, doi: 10.48033/jss.10.4.11.